'경합하는' 접경지역의 발전: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전망과 도전

치 나오미, 이와시타 아키히로 (일본 홋카이도대 교수)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북방 영토 (남쿠릴 열도)

- 남쿠릴 열도는 3개의 섬(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으로 구성된, 러시아가 통제하고 홋카이도 북동쪽 해안에 놓여 있는 바위섬 군락이다. 이들 섬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으로 자신의 북방 영토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 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쿠릴 열도 전체가 일본 관할이었다.
- 그러나 1945년 8월~9월 소련군이 이 지역을 휩쓸어 일본군을 투옥하고 몇 년 후 나머지 일본 민간인들을 모두 송환했다.
- 오늘날 이 섬들은 사실상 러시아연방의 일부로서 사할린 지역의 행정부에 속한다.
- 현재까지 양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현재의 북방 영토

-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 러시아인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본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 그러나 분쟁 장소인 이 열도의 러시아 거주자와 전 일본인 거주자에게는 특이하게 비자 면제 체제가 존재한다.

-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함께 일본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해 왔다.
  - 경유, 식품, 의약품
  - 쿠나시르에 신항만 건설, 시코탄의 의료시설, 디젤 발전기 및 열도 내의 기타 시설과 같은 소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 쿠릴 열도 주민들의 일본에 대한 의존과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남쿠릴 영토에 대한 러시아 주권에 도전을 제기했다.

- 데이비드 카플란(David Kaplan, 2000년)은 국경에서는 독특한 세력 집합이 이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형성된다고 주장해왔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 1992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거의 9천 명의 일본인이 남쿠릴 열도를 방문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약 7천 명의 러시아인이 일본을 방문했다.

- 이 방문에는 일본과 러시아 음악의 시연, 섬의 야생 동물에 대한 연구, 섬의 미래에 대한 토론, 패션 갈라까지 포함되었다.

- 이 비자 교환 프로그램의 공식 목표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는 것이다.
  - 일본인에게는 열도에 있는 조상의 묘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손 보는 게 가능해졌고, 일본인 방문객들은 러시아 가정에 초대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본 외무성은 이 프로그램이 영토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 또는 러시아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일본 정부는 또한 추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지역인 남쿠릴열도나 북방 영토 외의 다른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 외무부는 또한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팸플릿은 이 조언이 러시아의 쿠릴 열도에 대한 주권 인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본은 러시아 관할권에 대한 복종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북방 영토에 관할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수행되는 어떤 활동도 허용치 않는다고 설명한다.

- 두 나라 방문의 불가피한 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당시 사할린 주지사였던 이반 말라코프(Ivan Malakhov)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웃의 습관, 문화 및 생활 방식을 접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정과 좋은 이웃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물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어서 일부 사람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뒤에 있는 지정학적 동기를 의심한다.
  - 사할린 엘리트들은 무비자 프로그램이 쿠릴 열도 주민들이 이 섬들의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인도주의적 지원

-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열도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중 가장 명백한 것 중 하나는 가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때다.

- 일본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1994년 10월 4일 자정 직후에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열도를 강타하여 11명이 사망하고 24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이후 열도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생과 사의 문제가 되었다.

- 이 지진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방관과 일본 정부의 물질적 지원 혜택은 필연적으로 쿠릴 열도 주민들의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 "1994년 가을 악명 높은 지진 이후 쿠릴 주민 상당수가 쿠릴 열도에 작별을 고했고, 그 이후 그들의 영혼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피해자를 위한 빠르고 효과적인 국가 지원을 거의 믿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사할린 지역 정부도 열도 주민

을 신속하게 도울 수 없었던 최악의 순간에 일본 측에서 연료와 생필품을 들고 그들을 도우러 왔다. 시코탄에는 일본인에 의해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는데 쿠릴 열도 주민들은 이를 잘 기억한다."

- 이러한 양면적인 감정은 일본측의 후한 인도주의적 원조가 열도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준다.
- 2010년 7월에 일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한 멤버는,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러시아는 열도 주민들의 영혼을 간신히 사들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잠정적 관찰

-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불가피한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쿠릴 열도에 거주했던 일본 시민들이 그들이 출생했던 곳으로 손님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일이다.
- 예전 일본인 거주자들에 대한 러시아 측의 연민과 존경은 그들의 조상 묘지 방문을 용이하게 했다.
- 마찬가지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관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러시아 쿠릴 열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주민들은 지진 이후 생활 수준이 절박할 정도로 가난해지고 러시아 정부와 정치인에 의해 버림받는 느낌이 커지고 있었기에 일본의 지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 쿠릴 열도 주민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여론과 중앙정부의 재정 개선을 인식한 러시아는 최근 이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재확보하려고 시도했다.
-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인도주의적 교류를 넘어 민족주의적 정치로 전환되면,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시작했던 지역에서 개인적 연결과 선의의 토대를 훼손하게 된다.
- 그런 가교 역할이 없다면 이 냉전 영토 분쟁은 영원히 얼어붙을 것이다.